

‘소변 니코틴’ 조사했더니…女청소년 흡연율 2배 높았다

12~18세 청소년 1258명 분석 결과
여자 실제 흡연율은 두배 이상 많아
남자 실제 흡연율 13.8%, 여자 6.9%



청소년의 실제 흡연율은 조사 당시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5%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실제 흡연율은 조사 당시 밝힌 흡연율의 두 배 이상 많았다.

1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원광대 산본병원 가정의학과 서유빈 교수팀은 2016~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2~18세 청소년 1258명을 대상으로 실제 흡연율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서 교수팀은 요중 코티닌 농도가 μg 당 50ng 이상이면 ‘현재 흡연 상태’인 것으로 간주했다. 니코틴 대사물질의 하나인 코티닌은 흡연 여부와 흡연량을 측정하는 생물학적 지표다.



흡연율 조사 결과 청소년이 “현재 흡연자”라고 답한 비율은 8.2%(94명)였다. 하지만 서 교수팀이 요중(尿中) 코티닌 검사를 통해 실제 흡연자로 확인한 청소년의 비율은 13.8%(142명)로, 5.6%포인트 더 높았다.

또 조사 당시 밝힌 흡연율은 남자 청소년은 11.6%, 여자 청소년은 3.2%였다. 하지만 실제 흡연율은 남자 청소년은 18.4%, 여자 청소년은 6.9%였다. 여자 청소년의 실제 흡연율은 본인이 밝힌 흡연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자 청소년의 거짓 응답 가능성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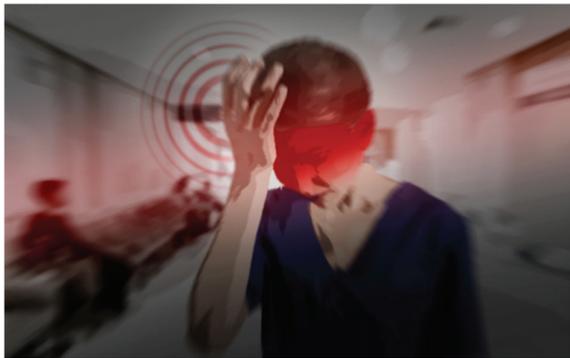
자 청소년보다 4.1배 더 높았다. 가구 소득이 높은 청소년의 거짓 응답 가능성은 소득이 낮은 청소년의 2.3배였다. 반면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거짓 응답 가능성은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 청소년의 절반 수준이었다.

서 교수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율 조사에서 자가 설문 방식은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며 “요중 코티닌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함께 해야 정확한 청소년 흡연율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뉴스

뇌내출혈 환자 연 5만7345명…60대 이상 10명 중 7명꼴



뇌내 혈관이 터져 피가 고이는 ‘뇌내출혈’ 환자 수가 지난 2021년 5만7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가량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뇌내출혈 진료인원은 2017년 5만5330명에서 2021년 5만7345명으로 2015년(3.6%) 증가했다. 남성은 2017년(3만587명)보다 959명(3.1%) 늘어난 3만1546명(55%), 여성은 2만4732명 대비 1056명(4.3%) 증가해 2만5799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뇌내출혈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60대가 1만6309명(28.4%)으로 가장 많았다. 60대는 1만3371명(23.3%), 50대가 1만756명(18.8%)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 이윤호 교수는 60대에 뇌내출혈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50대 이후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찢어지기 쉬운 상태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자가 증가해

2017년보다 3.6% 증가…남성 절반 이상
1인당 진료비 1017만원…5년 새 38.3%↑
언어장애 등 의심증상, 즉시 병원 가야

뇌출혈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뇌내출혈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5070억원에서 2021년 5831억원으로 1762억원(43.3%)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4% 수준이다.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736만원에서 2021년 1017만원으로 281만원(38.3%) 증가했다. 뇌내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다. 뇌내출혈의 크기가 커서 급격한 뇌압의 상승을 동반하면 의식 저하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뇌내출혈이 발생하면 갑자기 반신마비 또는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하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언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한쪽이 잘 안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서 보이는 복시 증상 등의 시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소뇌 병변이 온 경우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한다. 뇌내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음주는 삼가고 담배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음식을 싱겁게 채소·생선류를 충분히 섭취하며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좋다.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 뇌출혈은 발생 1~2일에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증상을 숙지했다가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초기치료를 받아야 한다.

뉴스

“근육량 많은 남성 일수록 장내 미생물도 다양…첫 규명”

남성과 여성의 근육량에 따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은 근육량의 정도에 따라 미생물의 다양성, 균의 구성 등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남성은 근육량이 많을수록 균이 다양했고 특징 균이 더 많았다. 성균관대의 강북삼성병원 재활의학과 윤경태 교수·박철현 교수·연구지원실 김하나 교수는 2014년 강북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중년 남성과 여성 1052명의 대변 샘플과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장내 미생물군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팀은 체내 총 근육량을 사분위수(데이터 4등분)로 나누어 근육량의 정도에 따른 장내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 균의 구성, 대사 경로 및 특성의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여성에서는 근육량의 정도에 따라 미생물의 다양성 차이, 균의 구성, 군집의 다양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남성에서는 근육량이 많을수록 균이 다양했다. 특히 근육량이 많은 남성에서 헤모루스 파라인플루엔자(Haemophilus parainfluenzae) 균과 로즈부리 페이스스(Roseburia faecis)균이 많았다. 박 교수는 “세계 최초로 남성과 여성의 근육량에 따른 장내 미생물의 특성의 차이를 밝힌 연구”라면서 “향후 난치성 질환 중 하나로 근육량이 감소되는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에 있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에 간간이 되는 기초자료로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